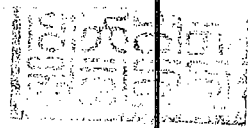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이 범 찬	일본명	
	한 자	李 範 贊	이 명	
출 생 연월일	미 상		진 광 연월일	미 상
본 적	미 상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91.4.9~1891.8.6	書狀官 (일성록, 1891년, 4월 9일, 8월 6일)		
	1897.7.15	홍문관 시독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 1, 1994, 523쪽)		
	1897.12.7	중추원 2등의관 (같은 자료, 523쪽)		
	1897.12.15	奉常司 부제조 (같은 자료, 523쪽)		
	1898.1.8	비서원승 (같은 자료, 523쪽)		
	1898.1.19	봉상사 부제조 (같은 자료, 523쪽)		
	1899.9.5~1899.11.6	비서원승 (같은 자료, 523쪽)		
	1904년 ~ 1945년			
	1910.1.24	국민동지찬성회 회장 (국민신보, 1910년 1월 25일 3면)		
1911.1.13	시천교 奉敎 (시천교월보, 제1권 제2호, 1911년 3월, 28쪽)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D) 합방찬성 장서 제출

▶ 『國民新報』, 1910년 1월 16일 3면, 「유생의 건백서」.

“경성 및 13도 搢紳儒生 대표제씨가 내각에 건백서를 提呈한 전문이 如左하더라 (중략)

일진회가 주창한 정합방(政合邦)과 같은 것은 시대를 관찰하고 변화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하여 잘 하는 계획은 이미 발표된 3글자가 될 것이니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때에 어두워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오로지 배격하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으니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도의 백성의 흉악한 말이 이 시대에 마음대로 횡행하고 있는데, 만약 스스로 나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런 무리들의 흉악한 말을 하나의 큰 문제로 삼아 응당 공박하고 배격하고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할 것인데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정합방을 주창한 일진회를 향하여 미친 듯이 외치며 원수와 같이 미워하는 자는 과연 어떤 심장입니까.(중략)

융희 4년 1월 11일

진신유생 정삼품 前 승지 이범찬 (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1일 2면, 「이것 또 무엇들」.

“이범찬 등 몇 명이 유생이라 자칭하고 합방문제를 찬성하노라고 청원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는 말이 있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7일 1면, 「아귀지옥으로 잡아가들 적은 요망한

무리」.

“난신적자가 어느 때에 입사리오마는 대명천지 밝은 날에 머리를 흔들며 눈을 번득여서 조국산천을 들어다가 다른 나라에 합병코저 하는 난적배들은 오늘날에 처음으로 보았도다. (중략)

이 적은 요망한 무리들은 누구인가 서창보 이범찬 박문규 조덕하 김병훈 홍성관 최정규 이학재 김사정 이종춘 이병규 이규학 김현영 박병한 등이라. (중략)

오호라 이 무리들이 저희 구복을 위하여 조국을 팔아 먹고자 하며 동포를 팔아 먹고자 하는가 오호라 이 무리들이여 이 무리들의 죄는 아귀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도다 (후략)”

▶ 『황성신문』, 1910년 1월 29일 3면.

“연안이씨 문중에서는 이학재 이칭익 같은 자손이 있는 것은 祖先의 忝辱이오 문중의 수치라 하여 兩個名을 譜牒에 割出去하기로 결정되었다지. ○西의 恥는 고금 일반이로고. 然하면 전주이씨 광평대군과 문중에 이범찬과 달성서씨 문중에 서창보와 우봉이씨 문중에 이종구와 연안김씨 문중 김사정과 덕수이씨 문중에 이종춘과 남양홍씨 문중에 홍성관 등은 去姓 당하기가 可戲여.”

2) 국민동지찬성회 조직과 활동

▶ 『國民新報』, 1910년 1월 25일 3면, 「국민동지찬성회」.

“국내 摺紳章甫의 유지인사가 시국의 급박한 형세를 覘하여 正합방론을 찬성하여 내각과 통감부에 長書를 提呈함이 백여인에 達하였슴은 已報하였거니와 동지찬성자의 일치한 의견을 합동찬성함이 便宜하기로 爛商確議하여 동지제씨가 국민동지찬성회를 조직하고 신고서와 취지규칙을 해관 경찰서와 헌병사령부에 納呈하고 임시사무소는 북부 원동 9동 5호로 假定하고 작일 상오 2시에 발기총회를 開하였는데 당일 입회원이 156인에 達하였고 임원을 선정함이 如左하니

회장 이범찬, 부회장 서창보씨로 간사는 김사정, 이종춘, 조덕하 삼씨로 평의원은 박민규, 이병규, 김병훈, 홍성관, 손용우, 이선용, 권상규, 이종구, 이세중, 정인욱씨 등 10인을 우선 추천하고 평의원장은 박민규씨로 서기는 박병희, 이수봉 양씨로 추천하였다더라.”

▶ 『국민신보』, 1910년 1월 25일 4면, 「국민동지찬성회 취지서」.

“오호라 국가는 危如一髮하고 국민은 急如累卵한 이때에 국가의 국민된 의무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전할 일대방침을 弁髦에 歸하여 邱墟溝壑의 前途危境을 越視奏瘡함이 인도상 의리가 墜地할 바라. 오직 우리 국민동포는 일제히 熱血을 瀝盡하여 국가안위와 국민존망을 己任으로 擔荷하고 一會를 조직하여 五大目的을 급급 이행하여 목하 胥溺을 以手援之키로 기도하여 오백년 국가중사를 공고하고 2천만 국민동포를 생활케 함이 國家幸甚 國民幸甚

유희 4년 1월 23일

발기인 정삼품 서창보

同 이범찬(중략)

목적

일. 한일친선을 尤極敦睦함(중략)

일. 정합방문제를 찬성함.”

▶ 『대한민보』, 1910년 1월 26일 2면, 「新凶會内幕」.

“소위 국민동지찬성회라 칭하는 자의 소굴에 진상을 探한즉 일진회가 凶회를 발포한 후로 일반국민에게 嚴勵한 징계를 受하여 人人이 不容함으로 일종 奸凶한 계획을 做出하여 이학재를 引誘하고 최정규 서창보를 繼誘하여 합방찬성의 意로 내각에 장서케 하더니 到今 소위 진신유생이니 하는 중 窮餓挾雜의 輩를 利誘하여 極鄙陋沒常識의 會를 조직한 모양인데 그 중 소위 縉紳云者의 이범찬 권직상 이종춘 이종구 정인옥 이칭익 輩는 皆 不學無識하며 愚痴鄙劣하여 혹은 公逋로 隱避한 자와 혹은 賭枝沈色한 탕자로 知舊에 擯斥된 자인 고로 (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3일 2면, 「아귀작난 단속했다」.

“소위 국민동지찬성회에서 내각과 통감부에 장서를 제출할 차로 지금 기초한다는 말이 있음으로 작일 상오 십시에 중부경찰서에서 그 회 회장 이범찬을 불러다가 사실을 묻고 다시 망동치 말라고 엄밀히 단속하였다더라.”

▶ 『國民新報』, 1910년 2월 8일 3면, 「국민동지회 장서」.

“국민동지회에서 정부와 통감부에 장서를 提呈하였는데 그 전문이 아래와 같다
더라

「통감부에 올리는 장서」

우리 양국이 정합방 계약을 완성하고 함께 문명정치의 범위로 나아간다면, 서로 싸우는 것이 반드시 그치고 원망하는 독기가 섞여서 사라지고 인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교류하는 정이 더욱 친밀하여 서로 부합하여 틈이 없어서 저들 열강이 그 사이를 엿볼 것을 기약하지 못하여 우리 동아의 황인종이 태산의 반석같이 안정된 자리에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각하는 즉시 귀국정부에 알려 도모하여 실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3일 2면, 「아귀들 죽겠네」.

“국민동지찬성회에서 경비가 균색해야 그 회장 이범찬이가 일진회장 이용구를 조석으로 방문하고 경비를 청구하되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아니하였다더라.”

▶ 『국민신보』, 1910년 2월 15일 2면, 「兩會 懇親 盛況」.

“국민동지찬성회에서 일진회의 제창한 정합방을 찬성하기 위하여 동회를 조직함은 일반 知了하는 바인데 찬성회에서 발기하여 일진회와 간친회를 개최할 旨로 청유하여 재작일 하오 6시에 찬성회장 이범찬씨 이하 간부 의사원 60여명과 일진회 총무원 평의원 20여명이 명월관에 회동하였는데 찬성회 부회장 서창보씨가 식탁에 就하여 개회취지를 설명하였고 전 간사원 최정규씨가 일진회 축사를 진술하매 일진회 부회장 김택현씨가 답사하였고 본사장 최영년가 찬성회 축사를 진술하매 동회 총무 조덕하씨가 답사하였고(후략)”

▶ 『황성신문』, 1910년 3월 5일 2면, 「何其愚甚」.

“소위 동지찬성회장 이범찬은 작일 이용구를 對하여 간청하기를 정합방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당은 일진회원과 동지찬성회원으로 조직되는 것은 已所知하는 바어니와 此時를 당하여 기회를 不失하고 자기 하로는 농상대신의 탁자를 參興케 하라 하매 이용구가 微哂答言하기를 於此於彼間에 정합방이 실시된 然後事인즉 現今 問은 安心做去하여 此等 언론을 做出치 勿라 하얏다더라.”

▶ 『日韓合邦記念塔建設ニ就テ』, 1934, 15~17쪽, 27쪽.

「日韓合邦記念塔記」

“(전략) 합방의 주창자 일진회 회장 이용구는 속히 일한합방을 성취하여 부하 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고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 근거를 만들어 日滿聯邦을 실현하여 이를 아세아 전역에 미칠 것을 계획한 것으로서 이 일 모두를 송병준 및 우리들[흑룡회-작성자]과 협의하였다. 한국의 여론을 지도하거나 彼我[일본과 한국-작성자] 在朝의 諸公을 움직이고 혹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백방으로 고심하여 드디어 1910년 8월 29일의 조서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이에 일한합방기념탑을 건설하여 영구히 명치천황의 유업을 찬미하여 받들고 아울러 이용구·송병준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당시 합방에 공헌한 朝野 同志의 이름을 새겨 탑 속의 석실에 들으로써 이를 영원히 전한다. (중략)

「일한합방기념탑 내 석실에 봉납된 공로자 방명」

합방찬성 상서를 한 진신유생

(중략) 정삼품 전 승지 이범찬 (후략)”



과 단

1909년 12월 4일 일진회가 합방청원을 내각과 통감부 등에 상주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1910년 1월 11일에 이범찬 등은 경성 및 13도 진신유생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합방성명을 찬성하는 장서를 내각에 제출했다.

이범찬은 합방성명 찬성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10년 1월 24일에 서창보 등과 함께 국민동지찬성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다. 국민동지찬성회는 일진회의 재정지원으로 움직이는 단체로서 일진회의 합방청원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급조된 단체에 가까웠다. 결성 뒤 국민동지찬성회는 두 차례에 걸쳐 내각과 통감부에 합방을 촉구하는 장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이범찬의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범찬은 1899년 정삼품 비서원승으로 퇴관한 이후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국민동지찬성회의 간부들은 합방 이후 있을지 모를 논공행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합방청원운동에 나섰다. 이범찬도 이용구와의 면담에서 내각의 조각에 참여할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장서에서 국제정세와 대한 제국의 현실을 논하면서 합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방청원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이범찬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범찬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